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신

교구별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

교회학교 교사 야외예배, 각 전도회 모임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으며 가족 단위의 모임과 함께 전도회별 모임 등으로 각 교구의 5월은 바쁘다. 특히 금년에는 교구별 야외예배가 있는 해이다. 따라서 각 교구별 야외예배 및 단합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5월의 주말 및 휴일은 이런 모임들로 가득차 있다.

지난 해에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올림피아 한 마당을 치르며 우리 모두가 충현의 식구임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각 교구별 모임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사귀고 알아나가며 단합된 힘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각 교구별 모임은 주로 교구 내의 공원이나 놀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구별 모임은 교구에 따라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다.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에서 더 나아가 전도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며

새로운 신자를 많이 데리고 나오도록 권하고 시상을 하는 등 전도적인 측면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어버이주일에는 청년1부에서 소망부를 찾아가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며 특별순서를 마련해 교회내 어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도 교사 야외예배 및 친교모임을 계획, 준비, 진행하고 있다. 매 주일 얼굴은 보지만 충분한 대화와 친교의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보다 폭넓고 친근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간들을 가정으로 더 단합된 힘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각자의 일을 더욱 열심으로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 4부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 등록 세례교인은 투표권 있어

교회는 오늘 4부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제29대 장로 20명, 제10대 안수집사 40명, 제38대 권사 70명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지난 5월 5일 4부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각 직분자 피택을 위해 일정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당회에 일임키로 했고, 당회는 이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5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임시당회로 모여 피택수의 15배(장로 30명, 안수집사 60명, 권사 105명)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지난 주일(5월 12일) <주간충현>에 추천 후보자를 게재하였다.

온 교우들은 교회적 큰 행사인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여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선거에는 등록 세례교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장로, 안수집사는 총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하고, 권사는 충현교회 관례에 따라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어야 하되 종다수로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미리 준비된 투표용지에 기재된 명단을 보고 O표를 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피택수(장로 20명, 안수집사 40명, 권사 70명) 이내에 O표를 해야 한다. 피택수를 넘겨 O표를 하게 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개표는 저녁 찬양예배 후 하게 되며 다음주 <주간충현>에 피택자를 발표하게 된다.

고등부에서 학부모·교사·학생 특강 오늘 오전 10시 복지관 지하 2층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복지관 지하 2층 집회실에서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시간을 갖는다.

주제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이며 강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분희 교수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이때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배우며 마음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충현기도원 설립 18주년 부흥사경회

강사에 후암교회의 손상률 목사

충현기도원에서는 충현기도원 설립 18주년을 맞으며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5월 27일(월) 밤부터 5월 31일(금) 새벽까지 계속될 부흥사경회는 후암교회 당회장인 손상률 목사(사진)가 강사로 수고한다.

기간 중 새벽기도회(오전 5시), 낮 공부, 저녁집회(오후 8시)로 진행될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충현기도원에서는 차량편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 숙식도 제공하고 있다. 숙식은 등록하는 순서대로 하며 식사는 한 끼에 2,000원씩으로 기도원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별 취사는 절대로 금한다.

기간 중 충현기도원 교통편은 다음과 같다.



① 충현교회당에서 기도원으로 출발 : 오전 9~10시, 오후 6~7시

② 성남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출발 : 오전 10시 10분, 오후 7시 10분

③ 분당 이매촌 한신 아파트 전하리교회 앞에서 출발 : 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20분

④ 기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광주터미널에 오셔서 택시편(5,000원) 이천 곤지암 행 완행버스 타시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기도원 간판 있음) 도보로 약 10분

⑤ 기도원에서 교회로 오는 차편 : 기간 중 오전 6시, 오후 10시 30분(예배 후) 자세한 문의는 기도원으로 하면 된다.
☎ 0347-66-5425, 65-5472

새가정부 5월 가정세미나

정정숙 교수의
'가정과 교회'
오늘, 교육관 314호실에서
오전 10시 30분

정정숙 교수
• 충신대학교 교수
• 한국상담선교연구원 협동원장



교사 단기 수련회 지난 5월 15일(수), 16일(금) 양일 간 교사 단기수련회로 모였다. 교회학교 전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모인 수련회는 충신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정일웅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첫째날에는 "교회의 교육적 방향과 그 실제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둘째날은 "교사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 강의를 했다. 참석한 교사들은 진지하게 한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모여 교회교육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며 공통된 주제를 함께 생각함에 따라 교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 (창 28:10-22)

“아침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0-15)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감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충헌>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기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 (편집자)

지금 부른 찬송 중 2절과 3절을 따라 합시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같이 아끼답니까? 예.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받아 합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네 성소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네 성소를 공경하라” 한번 더 합시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계시는지요? 얼마만큼 금식도 하셨는지요? 그렇게 묻고 싶고 그러한 물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믿을 속에서 축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46장 2절과 3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대 부릅시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 17절, 22절 말씀을 한번 다같이 받아 합시다. “이에 두리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내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금의환향하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뜻으로 감사하는 뜻으로 또 영광을 돌라기로 베개 하였던 돌로 모퉁이 돌을 삼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일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봉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입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믿음의 성전, 봉사의 성전”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교회는 믿음의 성전입니까? 봉사의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성전, 봉사의 성전입니다. 이 안에 믿음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안에는 믿음의 성전이 있어요. 봉사의 성전은 믿음의 성전을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늘의 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성전, 우리는 그 믿음의 성전을 믿습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22)
 - 저녁 집회 정조를 구하라(사 7:10-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20-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아 6:4-9)

나오시다가요 교회 잘 안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죄 지어요. 남자들은 다 여자 찾고 여자들은 전쟁이 찾고 그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두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해요. 간혹 무교회주의자가 있지만 그 무교회주의자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가꾸고 봉사는 일로 인해 새 생명이 성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온전한 성전, 허물이 없는 성전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런 교회는 땅 위에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 채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것 깨닫게 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깨닫는 축제로 보충하고 또 말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전 봉사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이을시다. 그때에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그렇게 발의를 했다는데 단군 신사를 건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쫓기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대구에서 제일 큰 서원교회에서 쫓기대회로 모이면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설교 잘못하면 그만 당국의 눈에 벗어나서 고생을 하지 싶은데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큰 대회에 제가 설교하기는 좀 부족하다 싶어, ‘제가 다른 분을 시키십시오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구, 목사님 하는 것이 좋아요. 목사님이 해 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설교하라는데 끝까지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큰 교회에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지 못한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보니 그 주변에는 경찰, 형사, 신문기자들이 와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질까 싶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한 10시쯤 되어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모 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첫번에는 말을 아주 짧게 합니다. “그대 단군 신사를 세우는 게 왜 그렇게 해롭습니까? 우리 조상인데 우리 조상을 섬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베개 아파 가지고 우상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냐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하십시오.” 이러니 이 다음에는 압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면서 “죽고 싶냐” 에렵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냐?” 이래 죽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면 죽이소 어디서 죽일람입니까?” “그대 죽이겠다” 고 하는데 그대 “교수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교수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지식이 많고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안하십니까? 역사에 대한 공부는 교수 아니라도 우리도 많이 압니다. 우리도 많이 아는데 단군께서 그 단군 신당수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기록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단군 위에 단군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라고 그러고 단군의 아버지께 아버지가 계시는데 단군의 할아버지, 환웅이 계시는데 그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단군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 손자 되는 단군 그 손자 그 환웅의 손자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단군교가 국교가 될 수 없습니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낮 공부 ●

다. 이 나라에는 어느 종교든지 국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고 말씀을 했더니 얼마나 퍼부어 대가지고 퍼붓고 그래 퍼부어도 욕을 실컷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밤에도 골목길로 안 다녔습니다. 넓은 길로 조심해서 다녔는데 지금까지 안 죽은 거 보니까 헛방만 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조상이 바뀌어요. 우리 혈육적으로는 조상이 단군이지만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같이 한 음성으로 낭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 무엇이냐 무슨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단군 할아버지 우리 혈육적인 조상이지요. 김씨네 가문, 이씨네 가문, 박씨네 가문 모두 올라가면 박씨, 이씨, 김씨 가진 분들이 조상이지만 그것은 혈통적인 조상, 그 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조상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받아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혈통이 됩니까? 가문이잖아요. 혈통, 가문 또 우리 혈통적인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혈통으로 살면 그 분이 믿는 어른인지 안 믿는 어른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한 때 문공부 장관도 지내시고 이화대학 교수도 하신 분이 쓴 '한국과 한국 사람'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부모가 죽으면 곧 제사를 지내게 된다. 제사는 한국 사람의 종교다 그랬어요." 제사는 한국 사람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참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같이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너희 친척을 떠나라, 너희 고향 친척 너희 아버 집을 떠나라" 그 떠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예요. 조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고?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다.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고? 그런데 성경을 좀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떠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다같이 받아 합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 편에 있을 때에 그 아버 데라가 우상을 섬겼느니라"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은 우상을 떠나라는 말씀이예요 고향에 있으면 다른 것 못 믿어요. 맞아 죽어요.

대구에 내 아는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고령 오씨네 가문에서 나서서 대구에 있는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예수를 믿고 동네에 들어가서 은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그 동네의 제일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들려서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니 종교를 버리라. 진리는 하나 뿐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율교밖에 없는 거고 기독교는 이단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단 아닙니까?" "그러면 율교가 이단인가?" "율교도 이단이 아닙니까." "그럴 턱이 있나?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는

을 그냥 입고 고령 높은 재를 넘어서 고향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후로는 고향에 안 가요. 가면 맞아 죽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우상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피난 안 오고 이북에 살았어 보세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 안하고 배겨내나. 그 절 안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아버지 집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우상 안 섬기면 그는 맞아 죽어요. 받아 합시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데, 우상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지고 우에 삽니까? 논밭 형제가 고향에 다 있고 그리고 장사하는 데 급전 빌릴 데도 고향에 있는데 고향을 떠나면 우에 삽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

예수를 믿으면 조상이 바뀌어요. 우리 혈육적으로는 조상이 단군이지만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 무엇이냐 무슨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단군 할아버지, 우리 혈육적인 조상이지요. 김씨네 가문, 이씨네 가문, 박씨네 가문 모두 올라가면 박씨, 이씨, 김씨 가진 분들이 조상이지만, 그것은 혈통적인 조상, 그 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참 진리일텐데 그럴 턱이 있나? "어르신네 학교의 제도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율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예수교는 대학교입니다" 예수교는 대학교라고 하니까 "뭐? 저 죽일 놈. 절대로 믿음을 안 버리면 죽어야 된다." "죽지요. 할 수 있습니까, 이르신네"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들겨 패야 경찰이 잡아가지 동네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죽인 죄를 어떻게 묻노? 시골 가면 자기들이 재판해 가지고 죽일 죄에 걸린 사람은 덕석에다가 말아 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나와서 두 차례도 안 패고 한 차례씩 몽둥이질을 해요 여러 사람이 몽둥이질을 하니 아무리 덕석에 말았지만 그게 살 길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이 다 치는데 동네의 사촌, 육촌, 팔촌, 십촌, 십이촌 모두 나와 가지고 전부 내리패니까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 까무러쳐 가지고 죽이 버렸는기라. 죽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요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어요.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온 몸이 끈적끈적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렸던 덕석이 조금씩조금씩 풀려 깨어나 보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안 죽었어요. 시냇가에 가서 옷을 다 벗고 씻어서 옷을 말리지 않고 차가운 옷

을 주고 복을 주리라" 참 나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다같이 받아 합시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당신을 불러낸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쨌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 왔습니다. 우상을 떠나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음성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분이 누구고? 고향 나와서 아브라함이 자주자주 만난 분이 계시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천만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하겠는데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 우리보고 욕하는구나" "천만에 욕하는 것 아니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이야. 너희 마귀 새끼야. 왜 그런고 하면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거든" 받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에 하는 말, 받아 하세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야, 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나이 50도 못됐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느니라" 믿어집니까? 받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있으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시던 때에 구약에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친구와 같이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르치시던 분이 누구고? 누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하였거든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귀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우상 떠나고 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상이 아닌 진짜로 살아 계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받아 하세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사오며 할 때 아래 조사를 '을' 이라고 했는데 독일어 성경에나 영어 성경에 붙어 나오는 전치사의 의미로 볼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받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고 믿습니다." 한번 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분은 중간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떠나며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보니까 좋은 목사님 모시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를 먼저 만납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까? 예? 목사를 먼저 만나요? 그러나 한참 있다 보면 목사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예요. 그리고 그 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이삭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시듯이 그렇게 안해요. 자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낮 공부 ●

꾸자꾸 그것이 멀어지고 주의 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사람 모양은 예수님이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 모양으로, 친구 모양으로 가끔 오지요. “아브라함 계시는가?” “아이고 오늘 어떤 일이십니까?” “나가 보세” 하늘의 별을 많이 보이고 “저 별 어떤고? 내가 니 자식을 하늘의 저 별같이 많은 자녀를 내게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네 믿음을 의롭다.” 칭찬하십니다.

또 한빈은 집에 있으니까 두 사람을 대동해 와, 천사를 데려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계시는가? 하고 찾아 왔어요.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극진히 했어요. 하나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네게 숨길 수 있나?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만연하도다 그래서 그 성의 죄악을 알아보고 심판하려고 가는 중이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웃나라 망하는 것 눈 감고 있을 수 없고 기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성을 없으실 때 롯을 성을 없으시는 중에 건져내시더라” 받아 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 롯이 거기를 안 떠나요. 떠나지를 않아요. 집착이 되가지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시더라”

이렇게 친구 모양으로 주의 종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지도를 하고 의롭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훈련을 시키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 점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받아 합시다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서 20년 동안 애기가 없었어요. 그 일에 대하여 주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계 만민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일에 20년 기도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랬습니다. 어거스틴 한 사람 얻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세계 역사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녀로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20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더니 20년만에 하나님이 이삭의 몸에서,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더라 그랬어요. 뱃속에서 왜 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뭇튼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래 싸움을 하니까 리브가

가 이 일을 남편 이삭보고 얘기하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니까 ‘네 뱃속에서 두 국민이 있고 그 조상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둘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 봤더니 소용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경건하고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하더라고 합니다. 이는 경건한 생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지를 잘 하셨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부모가 죽을 때가 되면 축복을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죽으려고 하면 축복의 영이 임한답니다. 여러분도 잘 믿어 가지고 죽을 때 축복의 영이 임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복을 빌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읽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대로 꿈을 못 꾸고 환상을 못 봐도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면 야곱에게 축복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축복을 하려고 할 때 혈통적인 관례를 따라서 큰 아들을 불렀어요. “야 내 죽기 전에 내가 네게 마음껏 축복하고 가련다 별미를 만들다오” 그때 분명히 리브가가 남편보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 그렇지 않습니다. 뱃속에 애들 둘이 들어앉아 있을 때 기도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이 작은 자를 장자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무쪼록이면 야곱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니까 이삭이 끝내 혈통적인 것을 고집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두절미하고 야곱이 대신 형님을 가장해 털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보니 “야 니 누구? 이상타 니 음성이 야곱인데” 그래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와 만져 보고, 만져도 자세히 안 만지고 슬쩍 만졌는가 봅니다. 거 참 이상 타 음성은 야곱이고 몸은 누구라고 그 이상 타 그래 일단 먹어 놓고 보자 싶어 일단 잠수고 배부르도록 실컷 잠수고 “야 입 한번 맞춰 보자. 입은 왜 맛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냥하는 사

람들 멧돼지나 노루나 사슴을 잡으면 목을 따 가지고 피를 마시는 관례가 있어요. 에서의 입에는 피 냄새가 나요. 입 맞춰 보자 피 냄새 나나. 야곱의 입에는 무슨 냄새 나노? 젓 냄새 나는 것입니다. 입을 찹 맞추니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젓 냄새 나는 기라 ‘이놈 너 나를 속이는구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놈!’ 하려고 하는데 다 부어 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막 쏘아 부어 줘요. 당신이 감당을 못해 손을 번쩍 들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네 몸의 향취여 복 주신 땅의 향취로다 네게 곡식이 풍성함이며 형제가 너를 섬김이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 가지예요. 자세히 보면 뭔가 하면 첫번째, ‘곡식의 풍성함이며’ 하는 것은 경제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두번째, ‘형제가 너를 섬김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장차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축복해 달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너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머리에 손을 얹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기름진 땅에서 떠나라” 축복이요 저주요? “너는 네 칼 밭고 살아라” 칼을 밭으면 어떻게 되는가? 평소 그 말 뜻이 그렇습니다. 니 평소 무슨 소리 했잖나? 앞으려 기도한다고 돈 나오나 밥 나오나?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기술을 배워야지 말 타는 것, 배우고 사냥하는 것, 배우고 노루나 멧돼지 잡는 사냥하는 기술을 배워야지 되지 앞으려 있다고 돈 나오는 것 아니니 너는 평소 칼이 제일이라고 안 그랬나?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 주먹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래 너 그래 믿고 살아라 그겁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 머리 내 주먹 그렇게 하면 안 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가지고 살아야지 칼 밭고 살면 실패입니다. 여기에 그런 생각 가진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아나?

한 사람은 축복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중간 것은 없습니다.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중간은 없어요. 축복이냐? 저주냐?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안 믿으면 저주받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축복 받을 사람은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라가야 되지 내가 왜 찾노? 동쪽으로 갔나? 서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그렇게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36계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속여서 빼앗은 복이 참말로 복이 되겠나? 속여서 빼앗은 복이 진짜로 복이 되겠나? 두 번째로 세상에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고 희미하게 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이 진짜로 복이 되겠나?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그 말이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서 빼앗은 것이 축복이 되겠으며, 아버지가 더듬거리면서 축복해 놔 가지고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이 진짜로 복이 되겠나?’ 하고 도망을 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 목사 설교가 진짜로 저래 되겠나? 저래 되겠나? 하며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아멘 믿어지면 다행이나 안 믿어지면 우에 되겠나?

여’ 하는 것은 정치적인 축복입니다. 다윗의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만왕의 왕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섬김을 받는 섬기는 그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복비는 사람은 복 받겠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축복입니다.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대담히 나가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고 빨리 밖으로 나왔어요.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사냥을 해 가지고 와서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했으니 일어 나서서 마음껏 잡수고 축복해 주소서” 이삭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깜짝 놀라면서 “아빠씨 내 동생이 빼앗아 갔다. 그가 정녕 복을 받겠다.” “아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놈의 새끼가 먼저 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축복을 빼앗아, 아이고 아버지여 남은 축복 있거든 좀 주시오.” “다 주었다 다 주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있거든 좀 주소” “네 동생한테 가서 더부살이해라” “싫소이다 싫소이다 좀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낮 공부

이럴 때 불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은 야곱의 불 세례 장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는 중요한 말씀이 28장입니다. 이 28장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참말로 그게 복이 되겠나 이겁니다.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참말로 그것이 축복이 되겠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확신을 얻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하여 루스, 나중에는 베엘이라는 곳까지 가니 해가 넘어 갔습니다. 더 갈 수 없어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를 하고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고향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 나온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새우잠을 잤을 기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리를 쫓아내고 자는데 큰 팔자 고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환상을 봤는기라.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오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읽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올미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믿습니까? 다같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올미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대로 꿈을 못 꾸고 환상을 못 봐도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면 야곱에게 축복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광야에서 꿈을 꾀는데 그것이 환상 중에 "믿음의 성전"을 보았어요. 믿음의 성전은 보이지 아니해요. 예를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13명 아십니까? 그거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전은 누가 빠져요? 가룟 유다가 빠져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믿음의 성전의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다 받을 것이로되 죄송스러우나 유형적인 봉사의 성전에는 더러 빠지는 사람이 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한 것은 없고 이랬건 여기서 믿음의 성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이것이 하늘을 드나드는 문이로구나 그렇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공회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바로 성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이 이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교리가 정해 지기 전에 그 중요한 말씀의 환상, 성전에 대한 말씀, 그런데 꿈에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꿈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꿈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로 육신의 꿈이 있습니다. 저녁 잠을 때 짠 음식 잡수면 자꾸 꿈에 물 마시는 꿈, 육신의 자극에서 오는 꿈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의 특징은 뭐냐? 심장 약한 사람들은 그 꿈꾸고 나면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꿈이요. 높은 언덕에서 떨어지는 꿈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받아 하세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니 늙은 사람은 뛰하고 꿈 못 꾸고 젊은 사람은 뛰하고 환상보고" 꿈이나 환상, '영몽' (spiritual dreams)이라 하는 신령한 성령으로 오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특징

왜냐하면 우리 옆방에 밀양에서 이사와 사는 과수가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저의 어머니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요." "아이고 우리 조상이 못 믿게 해요." "조상이 죽었는데 무슨 조상이 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겠습니까? 감시다. 예수 믿어요."

어머니가 꿈을 많이 들입니다. 김치 담그면 김치도 갖다 주고, 된장 담그면 된장도 갖다 주고, 고추장 담그면 고추장도 갖다 주고 자꾸 많이 얻어 잡수니까 '아이고 한 번 가 주지' 이럽니다.

그때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을 벗어 신장에 넣고 마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 신은 다 있는데 그 부인의 신이 없어졌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 부인의 신이 없어졌습니까? 조상이 성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귀가 그래 시험합니다. 잘 이기소 잘 믿겠네 축복 많이 받겠네." "아이고 앞으로 고만 믿으라 하지 마라"

성전이란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카알'이라는 말입니다. 받아 하세요.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곳" 교회 와서 신앙 생활하는데 누가 불러 줘야 되요? 첫번째는 전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불러 줘야 되요? 받아 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은 세 가지로 있어요. 첫째로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그 꿈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늘 그 꿈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요.

용기를 주는 꿈을 전혀 안 믿는 것도 큰일이지만 너무 많이 믿는 것도 탈이고 꿈을 선별해야 되지요.

이 꿈은 무슨 꿈이겠어요. 성령이 주는 꿈인 줄을 믿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신령한 성전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聖)자, 집전(殿)자 혹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 말씀을 드리지요. 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카알'이라는 말입니다. 받아 하세요.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곳" 교회 와서 신앙 생활하는데 누가 불러 줘야 되요? 첫번째는 전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불러 줘야 되요? 받아 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참말로 하나님이 불러 줘야 되요.

그러나 어쩡니까? 또 전도하려고 믿으세요 하려면 김치 주고, 된장 주고, 쌀 없다 하면 쌀도 빌려주고, 돈 없다 하면 돈도 빌려주고 하도 얻어 잡수니까 그 집에서는 또 내 이름을 불러 가지고 '아이고 덕신이네 한번 가 주지' 어머니는 고마워서 그날은 갈 때 신주머니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때 신을 넣어 가지고 가니 신은 안 있어 버렸습니다. 두 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조금 뒤로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됐는데 고함을 지르더니 "덕신네 사람 살려!" 하는데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궁창에 처 박혀 있는 기라. 아무도 사람이 없는 데 그래 황급히 쫓아가서 꼬집어 내 가지고 "아니 그래 멀쩡하니 사람이 왜 시궁창에 빠졌어요?"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확 밀어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마귀가 예수 믿고 천당가는거 시험을 해서 그렇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 또 김치 주고 된장 주고 하도 많이 주니 '덕신네 한번 가 주지' 그래가지고 신주머니 두 개 가지고 어머니가 에

붙들고 가듯이 손을 딱 붙들고 가서 예배 마치고 붙들고 오고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예배보고 와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막 상추쌈을 싸 먹으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덕신네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요새는 화장실에 빠질 것도 없지만 지금도 시골 가 보세요. 작대기 두 개 걸어 놓고 다 있잖아요. 고만 놀래 가지고 버선발로 쫓아 가보니 화장실에 빠졌는기라. 이만큼 빠졌어 그 부인도 키가 작아 가지고 이래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남정네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씻고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구린내가 났습니다. 얼마 지나다가 "밀양택 감시다." "이제 절대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안 믿고 죽었어요.

한 번 더 받아 하세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안 불러 주면 안 되요.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고 전도한다고 다 믿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하는 곳이고? 받아 하세요.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곳,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자는 살려 주시리라" 믿습니까? 받아 하세요. "오는 자는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친척도 살고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왔어요.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일단 부르심을 받고 그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고 여러분의 개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 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자는 살려 주리라" 믿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노? 누구를 만나노?" 사닥다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닥다리 있잖아요. 천국 가는 사다리. 이 교회 보세요. 이 교회의 천장을 뚫고 태양계를 지나가서 은하수계 저 성운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뻗쳐져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사" 받아 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자는 오는 자는 살려 주시리라" 와서 땀을 만나야 사닥다리 곧 그 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보니 하늘까지 뻗쳐진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가 와서 자기 한 바퀴 돌아 주고 천사가 지키는 것이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뭐 아무 할 일 없이, 아무 쓸데도 없이 그냥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르락내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셋째날 (4월 3일) 낮 공부

리락하는데 그 발치를 따라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열리고 거기 하나님이 서서 계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누워 있는 야곱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우리 아버지 축복 기도가 분명 틀림없는 축복기도입니다." 그때 만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돌아가거라 너는 볼일 없다. 이래 되면 끝장난 것예요. 받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성령의 인침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이 참 되구나.' 너무나 기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 보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길을 누가 만들겠어요. 아무도 만들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설마설마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확실히 믿어지는 확신이 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할 일 없이 오르락내리락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8장 3, 4절을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받아 합시다. '향'이라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어요. 우리 기도가 다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성결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드리면 기도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봉사를 받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받아요. 감사를 받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물을 그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 가지고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천사가 메로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할 때가 있고 또 상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떠날 때 죽으면 내 혼자 천당 못 갑니다. 우에 가겠습니까? 공중 관세 잡은 자가 제기 기다리고 있어요. 공중 관세 잡은 자가 못 가도록 기다리

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영혼이 쳐 나오면 예수님이 덜렁 받아서 예수님이 오르락 우리를 데리고 오르락 천국에 갔다 놓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다고요. 예수님은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고마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 혼자 오르락 우에 하노? 절대로 혼자 못 가는 거라. 절대 혼자 못 가요. 혼자 갈 자신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하고 같이 가나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받아 하세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인으킴을 받고 함께 함께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큰 출세했습니다.

"주여 천당 간다고 사닥다리만 쳐 다보고 있다가 입에 거미줄 치면 우에 합니까?" 그런 말 더러 하지요. '교회 가면 밥 나오나? 돈 나오나? 뭐 나오나?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야 야곱같은 그 욕심쟁이가 얼마나 얼마나 그 물질을 애호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야 천당 간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만 보고 있다가 입에 거미줄 치면 우에 할 끼에? 우야노?

받아 하세요. "땅도 주겠다" 땅은 경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복받는 줄을 믿습니까?

한빈은 안동에 부흥회를 갔어 안동 교회에 정 장로라는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다니거든 간증 좀 해 주

고 안동 장씨들이 가지고 있는 고무누 각 좋은 집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안동 장씨는 알 거지가 돼 가지고 부산 가고, 대구 가고, 서울 가고, 여기도 오고 여러분 보소 시골 부흥회 가면 예수교를 받아들이 동네에서는 의사 나고, 변호사 나고, 목사 나고, 국회의원 나고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오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지금도 예수교 반대하는 동네는 발달 안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같이 "주여 천당 가는 사닥다리만 바라보고 있다가 입에 거미줄 치면 어찌지요?" "땅도 주겠다" 그런데 이게 리듬이 있어요. 예수 믿고 금방 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리듬이 좀 긴 사람이 땅도 주겠다. 주기는 주는데 금방 안 줘요. 10년, 20년 가는 기라 그러나 더 좀 긴 사람이 있어요. 땅도--- 주겠다. 30년, 40년 그리고 다음 대에 가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참 귀하지요. 땅도--- 주겠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고생 고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지요. 다같이 "아버지야 천당 가는 것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 좀 봐 주세요" 보통 욕심쟁이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 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자식도 잘 되요. 대통령 나와요 여기 대통령 안 나왔습니까? 저 계제도에 있는 양반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까? 좋은 자녀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받아 하세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왜 하늘의 별 같이 라고 했을까요? 주석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보고 뭐라고 하나? '스타, 스타', 스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스타 많이 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2,000만밖에 안 되지만 해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 가운데 꼭 유대인이 끼어 있습니다. 받아 합시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세계 만민 중에 나의 보배로 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믿으세요.

받아 하세요. "자녀도 별빛같이 빛나는 좋은 자녀를 많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 낳기 운동 하지 마소. 다섯 명쯤 낳고 그래서 하나는 목사 시키고, 하나는 과학자 시키고,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 시키고, 하나는 교수시킵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 이 사회 요소 요소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 복음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키고 세상 떠나는 날 이 세상 떠나는 날 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기 전에 늘 임마누엘 같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할 일 없이 오르락내리락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 4절을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라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어요. 우리 기도가 다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성결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물을 그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 가지고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큰 출세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아멘. 받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준비되었으면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어요. 받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 지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받아 하세요 예수님이 오르락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리락 해 가지고 한 뭉에 다 들고 가는 날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제림하는 날 역사에 그런 위대한 시온의 새 아침이 옵니다.

이런 굉장한 축복을 야곱이 꿈으로 환상으로 그런 영광스런 꿈을 봤습니다. 그것은 야곱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리셨느니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승리의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요." "뭘 간증해 보라고" "여기에 말입니다. 80년 전에 교회가 들어 왔어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댄 말은 할 줄도 모르고 예수 믿고 천당 그래 축복을 나눠주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나눠주고 이래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가 섰는데 안동 장(張) 씨네 가문이 얼마나 빙박을 합니까? 안동 장씨는 안 믿어요. 양반 뼈대귀 잡순다고 절대로 안 믿는데 그 이웃에 각 성반이가 사는 역촌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니까 만날 양반한테 놀리 사는 그들이 전부 예수교를 받아 들였어요. 그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쌍놈 종교 사당 못 짓는다고 해서 궤기대회가 일어나서 교회도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몇 채 사서 기둥 빼고 그 집 안에서 예배를 봤는데 예수 30년 믿는 가운데 길 가면서 양반보고 눈을 흘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집을 빼앗았습니까? 땅을 빼앗았습니까? 양반 세습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제네는 중에 안동 장씨들이 가지고 있는 문관옥답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손으로 그냥 들어 왔어요. 그리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



노인과 효도

이종대

(목사, 제2교구, 교육위원회, 소망부 지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고전 14:33)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있게 만유를 창조하셨고, 또 질서있게 만유를 다스리시며 섭리하십니다.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다스리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게 하십니다. 모든 권위, 즉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내려옵니다(로마 13:1).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自取)하게 됩니다(로마 13:2).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 아래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며 가정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랑의 사랑의 다스리심입니다. 따귀는 폭군과 같이 휘둘러가지만 하나님은 정제를 하시더라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의 모습의 일면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서 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권위'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권위 도전'이 가능합니다. '권위 도전'은 마귀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허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 도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사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알고 보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창조주가 없었으면 피조물인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치 않으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자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1~4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곧 이어서 5계명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초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도 하나님의 인간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는 만사를 잘한다 해도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견고치 못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상함을 발견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부모님에게서 발견하더라도 그 태도는 '공경'이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권위 상실의 시대입니다. 지향, 반향, 도전, 파괴,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적 권위인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자는 다른 모든 권위에 도전할 일삼을 것이며 '권위 순종자'를 바보나 비굴한 자로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로마 12:2). 훌륭해야 공경하고 존경스러워야 순종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도 훌륭하지 못하고 자신도 존경스럽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양가의 부모님,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경로'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



단은 것은 성경에서이지만,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6-15절에 보던 노인의 계도를 무시하고 소년들의 말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자녀는 섬기고 부모님은 경홀히 대하는 마귀적인 풍조가 만연합니다.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계에서도 경륜이 있는 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층의 말을 더 중시하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한심한 일도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경험적인 신앙보다 중요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소망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확신합니다. 효도는 우선 신앙생활을 보살피고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셔드리고 거동을 도와드리고 예배와 집회 참석이 가능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실용주의'로 나가면 안됩니다. 똑같은 투자(?)로 더 많은 유익, 효과를 꼭 기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노인을 보살피고 드리는 것은 시간과 노력, 정성, 물질 면에서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며 공경입니다. 교회학교의 영아, 유·초등부와 장애인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등이다 그렇습니다.

◆ 오월에 부치는 시 ◆

오월의 봄바람 사랑으로 잇고

사랑의 꽃망울 터뜨리는 초록빛
파이란 사랑 하늘 가득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웃음 함박 익고 익어 나래 펴는
오월은 마음의 고향 사랑의 달

창틈으로 스며드는 꽃향기 맡으며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현신의 사랑 갖게 하사
가식의 사랑 허영의 사랑 불태우는
오월은 마음의 고향 사랑의 달

오월의 봄바람 사랑으로 잇고
어두운 가정가정 불밝혀
한 사랑 두 사랑 열두 사랑
결혼의 사랑 나누는
오월은 마음의 고향 사랑의 달

다스한 정 오가는 가정의 달
이웃 사랑 가난 사랑 원수 사랑
사랑 사랑 죄인 사랑
가원은 노래로 평화를 이루는
오월은 마음의 고향 사랑의 달

김운섭(집사, 초동3부 교사)

◀ 새가정부에서 온 새가정 소식 ▶

행복 다지기

빈윤국 · 남미숙
(새가정부 회원)

노오란 은행잎이 길가에 쌓이던 가을 치음 만나, 1년 6개월이 지나 싱그러운 95년 봄날 주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갈릴리움에서 한 마음으로 깊은 머리 땀뿌리가 되도록 동고동락할 것을 주님 앞에 맹세했다.

지나간 세월은 참으로 짧다고 했던가. 엇그제 결혼식을 올린 것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갔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인 예쁜 딸 애지가 3개월이 지나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커가고 있다. 사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이 있기까지는 예비신랑신부교육부(예신부)와 새가정부의 가르침이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결혼 전의 일이 생각난다.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이것 저것 준비를 시작했다. 날짜를 잡아 놓아서인지, 만나면 결혼 준비 얘기로 서두가 시작되었다. 서두에는 짐소하게 치르자고 얘기를 시작하지만, 어느 누가 좋은 것들로 결혼을 치르자 않기를 바라겠는가. 이야기와 끝은 자꾸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

는 생각이 지배를 했고, 짜증까지 내기도 했다. 성대한 결혼식과 좋은 조건을 따지는 것을 주님께서도 별로 싫어하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주위의 권유로 예신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먼저 예신부에서는 이렇게 사회의 통념 속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 주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예신부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들의 막연했던 결혼관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 기독교적인 건전한 결혼관으로 바뀌었다.

요즘은 새가정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남편과 아내, 고부간의 문제, 부모로서 올바른 자녀 교육 등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교제하며 교육을 받고 있다. 주님 앞에 부부와 자녀가 함께

나와 말씀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가정부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토막소식

▶ 지난 주일 실시한 헌혈에는 392명이 참여했다. 이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들은 헌혈하지 못했다.



- ▶ 초등1부는 오늘 가족찬송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 초등2부는 어제 오후 2시에 올림픽공원에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를 열었다. 23일과 24일에는 설악산에서 교사 야외예배를 드린다.
- ▶ 초등4부에서는 오는 26일(주일) 성경이야기대회를 실시한다.

- ▶ 초등5부에서는 굿주리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쌀통'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오는 24일(금) 밤이섬에서 야외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 ▶ 중등2부에서는 오는 6월 9일에 개최되는 작은 음악회의 출연진을 추가로 모집한다. 성극과 찬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신청은 박현주 선생에게 하면 된다.
- ▶ 대학부는 24일(금) 충신대학교에서 전체야외예배를 드린다.
- ▶ 청년1부는 어버이주일인 지난 12일 소망부를 방문하여 소망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한편 24일(금) 전체야외예배를 드린다.

군전도회에서 진중세례식 및 헌당식

군전도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상무대 유격훈련장 유격진중교회에서 ROTC제34기 훈련생 202명을 대상으로 진중 세례식(사진)을 가졌다. 군전도회에서는 이날 위문품과 선물 등을 가지



고 장로 10여명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례받은 장교 후보생들을 격려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11일 오전 11시에는 1사단 15연대 연대교회인 소망교회 헌당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헌당식에는 현상민 목사가 설교를 양중섭 장로가 기도를 군전도회 여성 중장 순서 등 중장단의 특별순서 등으로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 소망교회는 우리교회 군전도회의 사업중 부대교회당 건축 지원 계획에 의해 군전도회가 건축비의 반 가량을 지원한 교회이다.

교인 가족 중 초등부에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 대상으로 초등1~6부 연합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 6월 2일,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교회학교 초등1~6부가 연합하여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6월 첫 주일(2일)에 실시될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는 초등1부에서 6부까지 해당 어린이를 초청하여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두 차례 초청 전도 집회를 갖게 된다.
이번 초청잔치는 부모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데 해당 자녀들이 초등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리 관계 및 예배 시간과 예배 마치는 시간 등이 맞지 않아 초등부에 참석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초청한다. 이 날 초등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한 예배시간대에 맞추어 초등부 예배를 실시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초등1~6부의 온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

- ▶ 청년2부는 오늘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 장년1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8일 손중국 목사를 모시고 '대화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부모포럼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강의와 비디오 상영이 있었으며, 청소년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 ▶ 장년3부에서는 오늘 학생특강을 실시한다. 강사:강지용 교수. 제목:그리스도 안에서 건강관리
- ▶ 탁아부 교사 야외예배가 오는 28일(화) 대한수도원에서 있다.
- ▶ 새가족부에서는 전반기 양육위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지난 12일에는 구명신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새가족 양육 및 관리'에 대해 훈련을 받았다. 오늘은 한영준 전도사가 '경건의 훈련과 성령 충만', 26일에는 김찬곤 목사가 '동기 부여와 소명의식'에 대해 강의를 한

다. 한편 21일(화)에는 양육위원 야외예배가 있다.
▶ 영어교육부의 초등부에서는 지난 5일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이 100여명,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특히 토라비나 집사의 초청으로 서울외국인학교 어린이 선교합창단 20명이 와서 합창을 해주었다. 반별 찬양도 있었으며 학생들이 몸으로 십자가와 하트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기도 했다.



* 지원교회를 다녀와서 *

6·25때 7명의 집사가 순교

지영순
(집사, 루디아 4·2지회원)

지원교회를 탐방하기로 한 전날 하루종일 비가 와서 모두들 걱정했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맑게 개인 당일(4월 18일) 아침에 교회 앞마당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장우천 목사님과 손미희 전도사님을 모시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아침 일찍 교회를 출발하였습니다. 비스 창가에 비치지는 파랗파랗한 세순나는 은행나무와 활짝 핀 개나리를 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송을 부르면서 전북 완주군 신월마을에 도착하였을 때는 어느덧 12시가 훨씬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전도사님, 사모님과 신월교회 성도님들의 환한 미소와 주름진 얼굴에서 마치 내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함과 정겨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21번지에 소재한 신월교회.
우리는 이진봉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고 교회당에 들어가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 후 신월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약 100여년 전.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로 예수님 잘 믿던 마을이 6·25전쟁 중,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곱 명의 집사님들이 순교한 후, 복음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전도사님의 기도로 1982년 세워진 교회가 오늘까지 2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양관 짓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신다는 전도사님의 설명을 들은 후, 루디아4·2와 마리아4·2, 루디아4·1지회에서 정성껏 모은 성금을 여전도회장이 전달하고 나서 우리는 점심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사랑의 점심을 푸짐히 먹고 짧은 일꾼이 거의 없는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아귀운 작별인사를 드리고 우리들은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 조그만 마을에 우뚝선 교회를 보는 순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또 한번 느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 방문한 신월교회 앞에서

